

로지스틱스학회, 대상시상식 거행

- 롯데햄우유 등 10개업체 수상



한국로지스틱스학회(회장 : 진형인)는 지난 4월 2일 고려대학교 LG포스코 경영관에서 제7회 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대기업부문에서 제조업은 롯데햄 우유, 서비스업은 E-Mart, 중견기업부문에서는 동양석판과 한국복합물류, 중소기업부문에서는 한국 OFA, 원로지스가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전주수 서강대 교수가 학술상을, 최원표 한진 해운 사장이 최고경영자상을, 윤문규 교수가 공로상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물류팀이 물류단체 및 기술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장인 김동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1월 30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를 통해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3월 16일 최종심사를 실시했다”며, 경과보고 및 선정경위를 각각 설명했다.

수상업체인 롯데햄 롯데우유는 연 7000억 원의 매출액과 1천만달러 이상의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우수식품회사로 인터넷 주문시스템과 모바일 상거래를 정착시키고, 탁월한 물류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대상수상에 대한 영예를 안았다.

E-Mart는 60개 점포를 보유하고, 매출액이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유통업체로서 세계적인 월마트와 까르푸를 누르고 한국 제1의 대

량할인 판매점으로 성공했다. 뿐만아니라, 판매물류, 운송물류, 조달물류에 있어서 국내 최초로 'EAN-14' 국제표준 물류 바코드와 무선LAN 입출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물류센터의 상품회전율을 15%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양석판은 387명의 종업원으로 2,183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Tinplate제조업체로서 원자재 및 제품의 출입고관리,



재고관리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 거래를 정착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종래의 물류단계별, 수단 별로 되어있던 화물운송체계를 복합화물터 미널을 중심으로 한 종합 화물운송시스템 으로 발전시켜 물류비를 50% 이상 절감시 키고 철도에 의한 대량수송체계 도입으로 수송기간과 수송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한국 OFA는 40명의 종업원으로 각종 블 류기기를 생산하여 연간 100억원의 매출액 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각종 물류시설, 물류기기를 생산 판매하여 물류혁신에 기 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윈로지스는 25명의 종업원으로 16억 5천 만원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지 만 물류의 전자상거래와 물류솔루션을 공 급하는 물류컨설팅업체로서의 역할이 인정 되어 수상했다.

학술상을 수상한 전준수 서강대학교 교수 는 물류, 특히 해운 항만물류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최원표 한진해운 사장은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과 뛰어난 리더 쉽으로 한진해운을 한국 제1의 대표적인 우량 해운회사로 키운 공적이 인정되어 최고 경영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윤문규 교수는 직전 로지스틱스학회장으로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공로상을 수상했다.

전경련의 동북아물류팀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노력을 통해 물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물류의 ROAD MAP을 만들어 물류업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한편, 학회는 시상식에 앞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3년 도 결산과 2004년도 예산 및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실시했다. **물류**

